

## 치위생(학)과 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관련성

윤미혜<sup>1</sup>, 지민경<sup>2\*</sup>, 신민우<sup>3</sup>

<sup>1</sup>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sup>2</sup>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sup>3</sup>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Mi-Hae Yun<sup>1</sup>, Min-Gyeong Ji<sup>2\*</sup>, Min-Woo Shin<sup>3</sup>

<sup>1</sup>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sup>3</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위생전공 대학생활과 높은 질적 수준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비 전문 치과위생사로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대전·청주·군산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작성하였다.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은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에 각 개별화된 맞춤 상담 및 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며,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 훈련프로그램을 접목시킨 다차원적인 향상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 치위생(학)과 학생, 임상실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as a preliminary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who can provide effective dental hygiene college life and high-quality dental medical services. Attempts were made to find ways to promote it. To collect data,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using a convenient sample method,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in Daejeon, Cheongju and Gunsan from April 8, 2019 to April 26, 2019.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with major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major satisfa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ly customized counseling and educational approach are required and there is the necessity of utilizing multidimensional improvement strategy that integrate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training program.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Min-Gyeong Ji (air638@hanmail.net)

Received April 6, 2020

Revised May 1,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 1. 서론

급변하는 여러 의료기술들과 함께 보건의료장비들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되고, 이로 인해 건강, 질병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지식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의 임무가 더욱 강조 되는 추세이다[1,2]. 구강건강을 위한 인력으로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능력은 기본 치과진료 협조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대인관계기술, 예방, 경영자로서 역할까지 그 폭이 넓어지면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3].

이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 인력이 될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문적인 지식과 균형 잡힌 교육을 습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4,5].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학생지도에 필요한 명료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4,5].

그 중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공학생 지도체계 확립과 예비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기본적 자질을 준비하기 위해 전공만족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다[6-9]. 박 등은 전공만족도에 관련하여 여러 요인으로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 등은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7].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하게 되며 직업의식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학과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진로뿐만 아니라 흥미에도 영향을 미친다[9]. 이와 같이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의 핵심 척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6-9].

다른 연구 요소인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인 감정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본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7]. 박 등은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감성지능은 전공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11]. 감성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감성지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12].

대인관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은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행동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대인관계 능력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13].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은 재학 중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업무를 미리 경험하게 되고 환자와의 대인관계형성 및 치과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과도 연계되므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14].

한편 치위생(학)과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을 모두 고려한 포괄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15,16].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이러한 내적 요인들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대전·청주·군산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서명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은 0.95, 예측변수(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 일반적 특성)을 10개로 감안하였을 때, 표본 크기 최소인원은 172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19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7문항, 감성지능 16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31문항, 전공만족도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성지능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도구는 Wong과 Law가 개발하고 황이 번안한 감성지능척도(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7,18].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0.891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도구는 Buhrmester 등의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과 이가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9,20]. 이 도구는 '나는 이것을 잘 못한다'의 1점, '나는 이것을 매우 잘한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0.968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척도는 김 등, 박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1,22].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는 1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공 교과내용,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 학교에서 하는 수업, 교수-학생 관계, 학과의 사회적 인식,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797로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자료는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는 T-검정, 일원분산분석법을 실시하였고, 일원분산 분석법 후 평균비교는 scheffe'로 분석하였다.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s correlation 을 실시하였고, 전공만족도에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변수의 특성

Table 1에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4.83점이었고, 대인관계 유능성은 3.18점, 전공만족도는 3.7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Item	M	SD	Cronbach's $\alpha$
Emotional intelligence	197	16	4.83	0.62	0.891
Interpersonal competence	197	31	3.18	0.48	0.968
Major satisfaction	197	20	3.72	0.69	0.797

###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에서 살펴보면 2학년은 48.2%, 3학년은 51.8%로 나타났고, 주거형태는 자택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숙사 등 28.4%, 자취 21.3%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경우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9.6%, 불만족 10.7%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동아리 활동은 안한다는 경우 56.9%, 하는 경우 43.1%로 각각 나타났고, 실습 전 관련기관 아르바이트경험이 없는 경우가 68.0%로 있는 경우 32.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측정에서 높은 군이 53.3%, 낮은 군 46.7%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이유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높다는 경우 3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 선생님 권유 21.3%, 성적에 맞춤 17.8%, 적성에 맞춤 13.2%, 기타 8.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Grade	2	95	48.2
	3	102	51.8
Residential form	Home	99	50.3
	Live alone	42	21.3
	Dormitory	56	28.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98	49.7
	Ordinary	78	39.6
	Dissatisfaction	21	10.7
volunteer club activities	Yes	85	43.1
	No	112	56.9
Related organization before practice part-time experience	Yes	63	32.0
	No	134	68.0
Stress measurement	Low group	92	46.7
	High group	105	53.3
	Grade-specific	35	17.8
Department choice reason	Parents, teachers recommendation	42	21.3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78	39.6
	Fit for aptitude	26	13.2
	Other	16	8.1
Total		197	100.0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

Table 3에서 살펴보면 감성지능에서는 주거형태가 자택인 경우 4.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인 경우 4.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4.84점, 불만족 4.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전 관련기관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경우 5.13점으로 없는 경우 4.69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과 선택이유에서는 성적에 맞춤 5.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주거형태가 기숙사에서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01점, 불만족 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3.41점으로 안하는 경우 3.01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측정에서는 낮은 군이 3.34점으로 높은 군 3.0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과 선택이유에서 부모, 선생님 권유가 3.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주거형태가 기숙사에서 3.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택 3.83점, 자취 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를 만족하는 경우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3.55점, 불만족 2.88점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3.90점으로 안하는 경우 3.60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측정에서 낮은 군이 3.90점으로 높은 군 3.53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과 선택이유에서는 적성에 맞춤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h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 Mean±SD, N=197

Characteristics	Divisions	Emotional intelligence	p-value	Interpersonal competence	p-value	Major satisfaction	p-value
Grade	2	4.84±0.62	0.884	3.20±0.47	0.658	3.74±0.70	0.797
	3	4.82±0.63		3.16±0.49		3.71±0.68	
Residential form	Home	4.98±0.61 <sup>a</sup>	0.001 <sup>***</sup>	3.05±0.45 <sup>a</sup>	0.003 <sup>***</sup>	3.83±0.64 <sup>a</sup>	0.000 <sup>***</sup>
	Live alone	4.42±0.44 <sup>b</sup>		3.19±0.63		3.27±0.72 <sup>b</sup>	
	Dormitory	4.88±0.64 <sup>a</sup>		3.39±0.31 <sup>b</sup>		3.87±0.61 <sup>a</su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4.95±0.55 <sup>a</sup>	0.000 <sup>***</sup>	3.37±0.43 <sup>a</sup>	0.000 <sup>***</sup>	4.05±0.62 <sup>a</sup>	0.000 <sup>***</sup>
	Ordinary	4.84±0.65 <sup>a</sup>		3.01±0.34 <sup>b</sup>		3.55±0.59 <sup>b</sup>	
	Dissatisfaction	4.22±0.52 <sup>b</sup>		2.92±0.76 <sup>b</sup>		2.88±0.15 <sup>ab</sup>	
volunteer club activities	Yes	4.89±0.58	0.235	3.41±0.40	0.000 <sup>***</sup>	3.90±0.67	0.002 <sup>**</sup>
	No	4.78±0.65		3.01±0.46		3.60±0.67	
Related organization before practice part-time experience	Yes	5.13±0.51	0.005 <sup>***</sup>	3.34±0.56	0.001 <sup>**</sup>	3.84±0.65	0.110
	No	4.69±0.62		3.10±0.42		3.67±0.70	
Stress measurement	Low group	4.89±0.63	0.214	3.34±0.52	0.000 <sup>***</sup>	3.90±0.73	0.002 <sup>***</sup>
	High group	4.78±0.61		3.00±0.36		3.53±0.57	
Department choice reason	Grade-specific	5.20±0.85 <sup>a</sup>	0.003 <sup>***</sup>	2.71±0.48 <sup>a</sup>	0.002 <sup>***</sup>	3.37±0.57 <sup>a</sup>	0.000 <sup>***</sup>
	Parents, teachers recommendation	4.59±0.61 <sup>b</sup>		3.47±0.44 <sup>b</sup>		3.61±0.81 <sup>a</sup>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4.73±0.55		3.20±0.39 <sup>ab</sup>		3.82±0.51 <sup>b</sup>	
	Fit for aptitude	4.89±0.37		3.24±0.28		4.14±0.94 <sup>ab</sup>	
	Other	5.05±0.15		3.21±0.57		3.66±0.39	
Total		4.83±0.62		3.18±0.48		3.72±0.69	

\* : p<0.05, \*\*: p<0.01, \*\*\*: p<0.001.

<sup>a</sup>by t-test or one way ANOVA.

<sup>ab</sup>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 3.4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살펴보면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 $r=0.259$ ,  $p<0.001$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r=0.328$ ,  $p<0.001$ )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 $r=0.406$ ,  $p<0.001$ )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N=197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1		
Interpersonal competence	0.259***	1	
Major satisfaction	0.328***	0.406***	1

### 3.5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

Table 5에서 살펴보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 $t=5.001$ ,  $p=0.000$ ), 감성지능( $t=4.442$ ,  $p=0.000$ )이 전공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 $t=-5.350$ ,  $p=0.000$ )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beta=0.253$ ), 대인관계 유능성( $\beta=0.323$ ), 임상실습만족도( $\beta=-0.344$ )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 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7.3%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N=197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2.254	0.169		4.394	0.0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rdinary/dissatisfaction)	-0.353	0.066	-0.344	-5.350	0.000
Interpersonal competence	0.446	0.089	0.323	5.001	0.000
Emotional intelligence	0.148	0.033	0.253	4.442	0.000
Adjusted $R^2=0.373$ , $F = 39.901$ , ( $p<0.001$ )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주거형태, 임상실습만족도, 실습 전 관련기관 아르바이트 경험, (학)과 선택이유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주거형태가 자취나 기숙사보다 자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님이 주된 양육자인 경우 감성지능이 높았다는 한과 김의 연구와 유사하였다[23]. 가족의 지지가 높을 때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택에서의 생활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사료 된다 [24,25]. 임상실습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2,26].

이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이 들어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업무를 계획, 성취하는데 정서를 보다 잘 활용하여 업무성과가 높다고 하였다[27].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임상실습은 감성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과제를 잘 수행하여 임상실습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 성취감으로 이어져 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Besson 등은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 합리적인 사고로 감정이 개입되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보인다고 하였다[28]. 이를 통하여 자신과 지신이 속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또한 실습 전 관련기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전공 관련기관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나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적성에 맞아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보다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더 연구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주거형태, 임상실습만족도, 봉사동아리 활동, 스트레스 측정, (학)과 선택이유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자택이나 자취하는 학생보

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한 대학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오랜 시간 동안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동기나 선·후배와 타과 학생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성함양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성을 갖춘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공봉사 활동의 확대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학생일수록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는 윤과 정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9]. Nelson 등은 사회 의존성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을수록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30].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교내에서의 운동시설 활용과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및 상담지도 확대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주거형태, 임상실습만족도, 봉사동아리 활동, 스트레스 측정, (학)과 선택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박 등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5]. 임상실습 경험은 학업성취도 및 학과만족도와 관련이 있고,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 후 취업의지, 나아가 직업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31].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바른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봉사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오는 동아리 활동을 불규칙적이라도 참여한 학생이 전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봉사활동 경험 대상자가 비 경험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박, 신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11,16,32]. 학생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사립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 등을 익힐 수 있어서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33]. 특히 전공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대학 시기의 봉사활동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허는 전공봉사 활동의 참여율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율도 높아진다고 보아,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내 봉사활동 및 전공 관련 봉사활동의 기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10,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서 높게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이는 평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35]. 윤과 정에 의하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 문제가 가장 높다고 하였고, 교육과정 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과 임상실습의 병행,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 취업에 대한 고민, 두려움 등의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9]. 따라서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인 상담을 통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된다. (학)과선택 이유는 성적에 맞추거나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가 가장 높았다. 이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이 학교 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았다[36,37].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 전공만족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이 풍부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의 유능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박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박과 신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1,38].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임상 현장에서 치과의사, 동료, 환자들 간의 상호작용 시 효율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것은 질 높은 치과의료 제공과 연결되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

되며 예비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7.3%로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임상실습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등, 김 등의 연구에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박은 감성지능이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5,11,39].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38].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였기에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온 연구 결과를 통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 가능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위생전공 대학생활과 높은 질적 수준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비 전문 치과위생사로써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대전, 청주, 군산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활용해 자기기입식설문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감성지능은 자택,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실습 전 관련기관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경우, (학)과 선택이유는 성적에 맞춤에서 높게 나타났다.
2. 대인관계 유능성은 기숙사,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측정이 낮은 군, (학)과 선택이유는 부모, 선생님 권유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전공만족도는 기숙사,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측정이 낮은 군, (학)과 선택이유는 성적에 맞춤에서 높게 나타났다.
4.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은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임상실습만족도 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7.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는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임상실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각 개별화된 맞춤 상담 및 교육적 접근이 마련되어야 하며,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융합 프로그램의 활용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M. G. No. (2005). A study on length of clinical practice observation performance of dental and hygiene the degree of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5(2), 185-199.
- [2] J. Park, H. J. Song & H. Y. Kim. (2010).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1), 197-213.
- [3] J. H. Kim & S. J. Han. (2016).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6), 1079-1092.
- [4] S. K. Yang & S. B. Kwon. (2012).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 169-177.
- [5] J. H. Park, H. J. Song & B. Y. Lee. (2018).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261-269.
- [6] K. H. Jeon, S. R. Lim & M. Kim.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nse of

- coher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departmental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5), 323-330.
- [7] S. K. Kim, R. U. Kang, E. Y. Kim, J. E. Moon, J. H. Jang & E. S. Jung. (2018).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2), 239-251.  
DOI : 10.13065/jksdh.2018.18.02.239
- [8] O. S. Choi, G. S. Ahn & H. J. Kim. (2015).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n performan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2), 182-189.
- [9] S. J. Jo. (2010).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ustomer centered educa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3, 111-151.
- [10] G. O. Lee & H. J. Chea.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DOI : 10.14400/JDC.2016.14.10.355
- [11] P. N. Park. (2017). Relationships among volunteer activiti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1), 264-273.  
DOI : 10.5392/JKCA.2017.17.11.264
- [12] S. Y. Yang.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370-378.
- [13]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14] M. G. Seong, Y. H. Lee & J. W. Yun. (2020). Analysis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2), 45-51.  
DOI : 10.15207/JKCS.2020.11.2.045
- [15] M. H. Nam & H. O. Kim. (2016).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63-273.  
DOI : 10.14400/JDC.2016.14.1.263
- [16]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17]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18] P. J. Hwang.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ogang University, Seoul.
- [19]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91-1008.
- [20]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21] S. G. Kim, Y. K. Ko & M. A. Jeong. (2012).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8), 248-255.
- [22] K. S. Park. (2015). *Self-efficacy and the satisfaction on dental hygiene-majoring students educational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23] J. H. Han & K. E. Kim. (2015).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5(6), 746-752.  
DOI : 10.17135/jdhs.2015.15.6.746
- [24] G. P. Ko & M. Y. Sim. (2015).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379-391.  
DOI : 10.5392/JKCA.2015.15.06.379
- [25] B. Cho & J. H. Lyu.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ompetence and family support) self-worth contingency in the relation of study



- skill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8), 1-21.
- [26]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82-696.  
DOI : 10.4040/jkan.2014.44.6.682
- [27] S. J. Lee. (2013).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Ajou University, Suwon.
- [28] G. Benson, J. Ploeg & B. Brown. (2010). A cross 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30(1), 49-53.
- [29] M. S. Yoon & H. J. Ju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resili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5), 384-392.  
DOI : 10.17135/jdhs.2016.16.5.384
- [30] D. R. Nelson, C. Hammen, S. E. Daley, D. Burge & J. Davila. (2001). Sociotropic and autonomous personality styles: contributions to chronic life 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61-76.
- [31] H. S. Oh. (2013). Study on the teach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dur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some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3(5), 777-786.  
DOI : 10.13065/jksdh.2013.13.05.777
- [32] M. A. Shin. (2013).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 1024-1035.  
DOI : 10.5392/JKCA.2013.13.11.1024
- [33] G. H. Shin & S. S. OHK. (2014).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on volunteer activit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29), 177-203.
- [34] S. E. Heo. (2016).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85-96.  
DOI : 10.15207/JKCS.2016.7.4.085
- [35] S. Y. Kim. (2016).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6(4), 115-122.  
DOI : 10.22156/CS4SMB.2016.6.4.115
- [36] K. H. Park & H. J. Choi. (2015).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2), 279-286.  
DOI : 10.13065/jksdh.2015.15.02.279
- [37] J. R. Lee, H. J. Kim & H. J. Ko. (2014). The effect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1), 39-47.  
DOI : 10.13065/jksdh.2014.14.01.39.
- [38] E. J. Park & S. J. Shin. (2018).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6(2), 15-25.  
DOI : 10.17333/JKSSN.2018.6.2.15
- [39] M. N. Kim, Y. M. Heo, H. J. Kim & Y. S. Ahn. (2015).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1), 81-89.  
DOI : 10.13065/jksdh.2015.15.01.81

## 윤 미 해(Mi-Hae Yun)

[정회원]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보건복지대학원 구강보건학 석사
- 2017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통계, 구강보건학, 융합
- E-Mail : papa0710@nate.com

## 지 민 경(Min-Gyeong Ji)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 치의학, 융합
- E-Mail : air638@hanmail.net

신 민 우(Min-Woo Shin)

[정회원]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치위생학, 융합
- E-Mail : hi-mw@chsu.ac.kr